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영·호남 시도지사, 지역균형발전 합심

무주서 협력회의 열고
지방시대 선도 성명 발표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재정위기 극복 대책 마련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
8개 공동협력 과제 내걸어



8일 오후 1시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북·부산·광주·울산·경북·경남 등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대구·전남 등 2개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균형발전건의과제(2건)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그린벨트 지역전락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개 노선), △영호남광역철도망

건설(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6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2024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등 주요행사 14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날, 제15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 차기 의장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의장인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는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영호남 시·도정 각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영호남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계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군, '지위 유지' 확정

지정 10년만에 이뤄진 첫 평가서 '합격'
'훼손 우려' 인천강 기수역 생태환경 지켜내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 생태관광지 지정

국내최초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이 유네스코로부터 지위유지를 인정받았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제36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조정위원회(MAB-ICC)는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비롯한 25개국 40개 지역의 정기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2013년 5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된 지 10년만에 이뤄진 첫 번째 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생물종이 풍부한 곳을 생태계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사회는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 △보전 △발전 △지원 분야의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군과 지역주민들은 영농 활동으로 훼손 우려가 컸던 인천강 기수역의 생태환경을 지켜냈고, 동식물 서식지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전국적으로 생태관광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부분 또한 높이 평가받았다.

앞서 고창군은 2022년 7월 정기보고서 초안을 작성했고,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 본부에 정기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생물권보전지역 10년간 생물권보전지역 주요 변화, 보전·발전·지원 활동과



유네스코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인 '운곡습지'. (사진=고창군청 제공)

연구·교육·홍보 프로그램 활동 상황 등이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은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671.52㎢)가 지정돼 있다. 2013년 지정 당시 행정구역 전체 지정은 국내 최초였고, 이후 2018년 전남 순천시가 행정구역 전체로 지정 받았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완충·전이지역으로 구분된다. 핵심지역은 고창갯벌람사르습지, 운곡람사르습지, 고인돌세계문화유산, 동림저수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선운산 도립공원으로 91.28㎢이다. 완충지역은 핵심구역 주변의 산림지, 하천 등 265.54㎢이며, 전이지역은 농경지나 주민거주 지역 등 314.70㎢이다.

올해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관리계획(2025~2030)용역을 추진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MAB-ICC 권고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세계 다른 생물권보전지역과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원광대 글로벌대학30 본지정 '한마음 한 뜻'

전북특별자치도가 원광대의 '글로벌 대학30' 본지정 대응을 위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도내 국회의원 9명, 정현을 익산시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백준흠 원광보건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대학 성공 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도지사-전북 국회의원-익산시장-원광대 총장 등, 성공 추진 간담회

전북자치도는 2024년 글로벌대학30 공모에서 지역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예비지정에 선정된 원광대+원광보건대(통합형, 이하 원광대)가 본 지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실현

을 위해서 '생명 산업의 글로벌 거점 대학'을 표방한 원광대가 반드시 글로벌 대학에 선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생명·바이오 분야와 연계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원광대가 반드시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어야 한다."며 "원광

대 글로벌 대학 30 본지정을 통해 지역과 대학, 대학과 대학 간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국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이를 글로벌 대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 등은 "대학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갖게 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나 스웨덴 말뫼처럼 원광대를 통해 익산시와 전북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원광대 글로벌 대학 선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음길

고향사랑기부제
진안에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아주세요.

고향에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세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지역특산물 등 진안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지급

- 기부액의 30%
- 진안군 답례품 : 돼지고기, 홍삼, 수삼(인삼), 사과, 진안홍삼사과 이용권, 승마체험 이용권, 진안고원물 온라인 상품권 등 34종

문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 063-430-2830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분 16.5% 추가 공제
-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기부금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원스톱 시스템)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창구(전국 모든 지점)